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아름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이 세상 사는 게 본래 놓고 그냥 가는 것!

마음의 능력을 개발하려면

문 스님께서는 우리 안에 광력·전력·자력·통신력이 증만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신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대무변한 마음의 능력을 개발해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답 세계적으로 각 종교인들이 상대를 놓고 믿고 기도하게 만들고 상대를 놓고 신을 찾게 하는 고로 항상 우리는 노예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볼 때 물주머니에서 오고 물주머니 어항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야 만이 우리는 자유스럽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주의 섭류를 전부 꿰뚫어서 우리가 알아야 하니가 이것은, 세상에 금덩어리를 태산같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의 마음, 마음으로서 그 골짜기를 벗어나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간 현실로도 따져 보라구요. 우리가 공기를 떠나는사실 살 수 없지요. 그러나간 어항 속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삼천대천세계 압축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땅 속도 들어갈 수 있고 물 속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통과가 안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자성의 심검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질세계에서, 즉 말하자면 학술적인 과학이다, 과학자다 하더라도, 과학이 아주 발전이 됐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과학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빠른 걸로 말하자면 '가고 음이 없다, 가고 음이 없이 가고 온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은, 빛은 가다가도 잡힐 수가 있고 가다가도 막힐 수가 있고 가다가도 도로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이 마음의 빛이라는 건, 마음은 빛도 없고 색깔도 없으면서도 어디든지 밟고 가까운 게 없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광대무변해요. 이 도리를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하고 내 몸 속에 있는 자생증생들부터 제도를 해야 내가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혼자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혼자 생각하는 것도 없고 혼자 듣는 것도 없고, 혼자 일하는 것도 없고 혼자 먹는 것도 없잖아요.

생각해 봐요. 세포 하나하나의 생명체들이 모두 우글우글한데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과 하나를 먹어도 모든 게 전체가 다 먹는 거지, 공식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했다, 너는 공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구조, 행을 하는데, 작용을 하고 사는데 이 원리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내가 혼자야 아니로구나. 수십 억의 내가 있구나.' 그 도리를 알면 손가락, 내 몸뚱이가 손가락 하나라면 손가락 하나를 손가락 하나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니까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이거나 모든 게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랬어요, 주인공! 그래, 주인공이라고 그랬으니 그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건 고정된 게 없이, 우리가 지금 걸어 올라오는데도 그 발자국을 짚어진 것도 없고 고정된 것도 없고, 그냥그냥 놓고 왔다 이거예요. 놓고 걸어 올라왔지요? 이 세상 살아나가는 것도 전부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 걸어오듯이 말이에요. 본래 놓고 가는 거구요. 지금 우리가, 본래 놓고 가는 건 태마음으로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놓느냐' 이런 문제들이 결부되는 거예요. 본래는 놓고 가는 거예요. 고정된 게 하나나 있어요?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그냥 들으면 또 고대음에 탄 소리 들어가야 하고 또 들어가야 하고 또 들어가야 하구, 언방 탄 소리 들어가면서 돌아가는 거죠. 탄 소리 해 가면서 돌아가고 탄 행동 하면서 돌아가는 거고, 먹는 것도 고정되게 먹는 거 없이 그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돌아가고요.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을 때 내가 먹었다 하며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떻게 움직여왔

을 때 내가 움직여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내 몸뚱이 속에 내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움직여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수화풍은 그대로 지수화풍이 한데 흡수해서 생명체가 된 거니까, 지수화풍이 그렇게 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돼서 있기 때문에 즉, 전력이 물이 없으면 통과가 되지 않아요. 전력을 쓸 수가 없지요.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이렇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용도가 자력, 즉 말하자면 광력 통신력 그 모두를 내가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신통은 즉, 눈으로 보는 것, 마음 안의 눈으로 보는 것,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틀이 아니다.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도 마음 안의 눈이 있기 때문에 육안의 눈이 있는 거지, 마음의 눈이 없는데 어떻게 육안의 눈이 뚫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틀이 아니다 이겁니다. 보면 벌써 마음으로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보는 순간 벌써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게 되고 순간순간 듣게 되고 하는 것도 모두가 알게 되고 내가 어디서 나온 거를 알게 되고 즉, 어디서 와서 이런 걸 보고 들었다는 것도 미

나와요.

그런데 있는데 어찌 없게 되느냐. 너무 고정됨이 없이 찰나 찰나 화하면서 돌아가니까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간 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서도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서도 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포괄적으로 돌아가서 그 포괄적으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마음이, 돌 아닌 마음이 생기게 돼서 안이다가 모든 거를 '야, 이 내면의 모든 것들도 돌이 아닌데 나와 다른 게 아니냐, 돌이 아닌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돌이 아니요. 그러니까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하나의 안테나한테 통신만 자꾸 넣으란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서 통신이 나와서 마음을 조절하고 주위 사람 마음을 조절하고 또는 주위의 사람의 마음을 조절하니까 행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론으로 몸을 이렇게 남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마음속의 마음으로 다스리면서 바로 말로 유하게 대치해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대처를 하면서 이 안에서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전부 마음 공부하는 재료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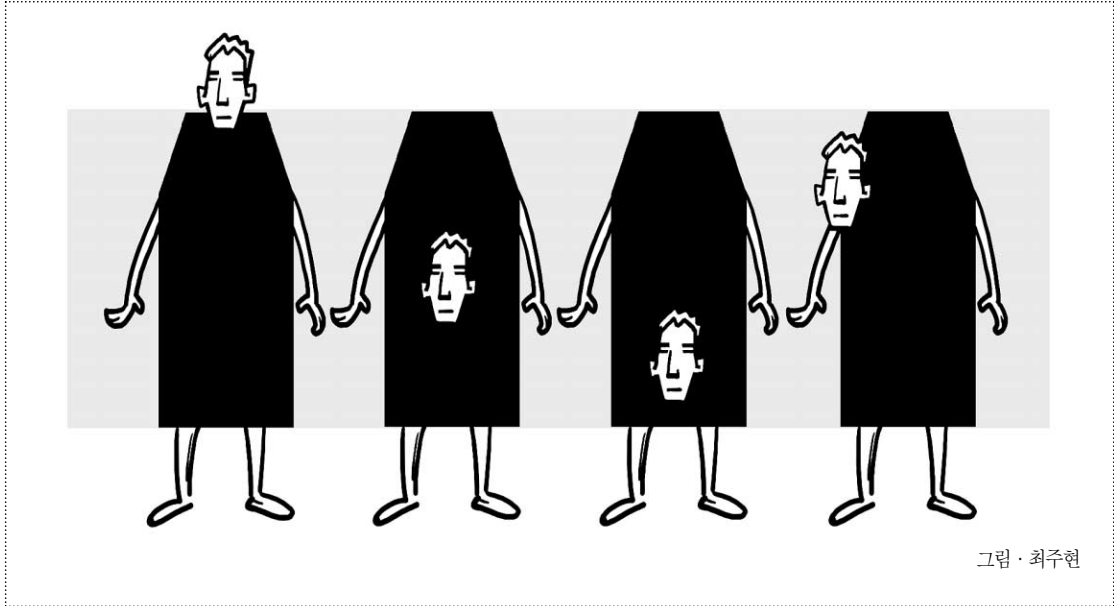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릇이 돼라

리미티 없게 되잖아요. 잃었잖아요.

그래서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런 것은 '보는 것, 아는 것, 가고 음이 없이 마음이 가고 있는 것, 또 어디서 온 것인지 아는 것, 내가 듣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밥을 하나 지어먹으려면 물도 있어야 하고 불도 있어야 하고 다 사람이 찻는 것도 있어야 하고 술도 있어야 하고, 이렇게 가공이 돼야 밥을 해먹죠. 그렇듯이 우리는 눈과 귀, 아는 것, 보는 것, 가고 있는 것 없이 모든 거를 동시에 쓰는 것이 오신통이다 이겁니다. 동시에, 저기서 행거리 소리가 나면 눈이 그쪽으로 가죠. 눈이 가는 때는 귀까지 가지 눈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남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벌써 눈이 가서 보게 되고 귀가 가서 듣게 되고 동시에 벌써 눈이 잘못된 거를 알게 되고 왜 싸우는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오신통이다 이거예요. 다섯 가지가 다 포괄해서 알았다 이거예요. 안 그대요? 다섯 놈이 한데 합쳐져서 아는 거지 한 놈만 가서 안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안 게 아니예요. 다섯 놈이 한데 합쳐져서 안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놈이 바로 고정된 놈이 아니라 항상 바뀌 가면서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모두 판단하고, 그놈이 그냥 노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고정됨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니 그놈이 바로 공했구나, 공했으니까, 그놈이 공했으니까 없다.' 라는 얘기

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혼은, 혼이 거기에 다 포괄해서 들어가서 그 심검이 되듯이, 심검이란 사람들을 건지고 살리는데 그 광력이 쳐들지만 해도 그냥 은 누리에 다 비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 심검이라는 거, 심검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얘기예요.

하물며 짐을 만드는 데도 자기의 혼을 다 넣어서 심검을 만들어야 그 검이 그대로 써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푹 치기만 해도 부러지고 그 칼은 못 쓰는 칼이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공부부를 해서 하늘을 받치고 걸릴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 한 번 나는 것도 천 년 만에 한 번 나가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태아의 성 감별에 대해서

문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 가지고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성을 감별을 해서 남자애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애들만 많이 태어나게 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성 비율이 맞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답 예전에 한때 중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 습니다. 남자를 낳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여자들을 낳으면 없어 놓는 그런 예가 많았답니다.

예전에 어른들 말 들으면요.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 고 통이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없었던 그 여자들하고, 지금 시대에 여자가 귀하다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난폭해지고 외려 땅까지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여자가 땅이라고 봅니다. 일체 만물만생을 다 소생시키고 키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남자는 위에서 따뜻하게 태양을 주고 모든 물을 주고 바람도 주고 다 주지마는 이것을 서로 본래 땅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밑창도 역시 하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라 만민의 어머니라고 할 수도 있죠. 땅이, 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중에 있기 때문에 밑에서도 위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등불이 있듯이 태양보다 외려 마음의 근본이, 태양의 근본이 마음의 근본이라는 그 말과 똑같이 우리는 아래 위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물을 소생시키고 기를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상황을 보세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애들 기를 때는 주접이 들지 않게 기르지만,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기를 때는 예

려면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참 절실하게 거기 매달려서 병이 일단 낫게 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정신없이 끌려가거든요. 그렇듯 자연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병이 나거나 병자가 생기거나 이런다면 일단 자기 주인공에 놓으려고 하지 않고 벌써 병원이나 약국부터 생각이 나거든요. 그게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서 안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남이 나를 이끌며 보살펴 주는 법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기계라면 조립한 장본인이 기계틀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조립한 사람이 더 잘 알지 만 사람이 더 잘 알지는 않아요. 아무리 의사나 박사들이 인체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의학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40%, 50%를 넘지 못해요.

내가 주인공에 놓고 관하면 '야! 여기서 이렇게 파워를 일으켰습니까?' 하고 알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 안 아프게 하는 그런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다른 거 아닌데도 약이 될 수 있는 건데, 똑 병원에 가서 거그러도 더 부작용이 나는 약을 해다 먹고야 마음이 편안하게끔 되거든요.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편안하다 이겁니다. 몸은 일어나고 마음은, 좀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해야 될 텐데, 마음은 맡았으니가 하면서도 몸은 몹시 아프니까 항상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면 양면이 다 괴로운 거죠.

그런데 원주에 사는 어떤 분은 병원엘 다니다 다니다 못해서, 병원엘 다녀도 영 낫질 않으니 어떤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때에 무슨 꼭 낫는다 안 낫는다 그런 것도 없이 하여건데, 너무 기를 있게 먹지도 말고 자기가 조절을 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그것 하나도 먹지 말랬대요. 그러나 요구하는 대로 먹고 죽으나 요구하는 대로 안 먹고 죽으나 마찬가지로, 아님니까, 죽는 거는!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먹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절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돈 200원 버리고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 그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마음, 그런데 왜 굳이 나를 삼켜 달라고, 타의에다가 병을 낫게 해 달라고, 구원을 해 달라고 막 빌어야만 합니까? 자기를 형성시키고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이 있는데 왜 자꾸 바깥으로만 끄달리면서 서느냐는 겁니다. 생각이 하나가 아니고 눈도 하나가 아니고 귀도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 가지고서 고정되게 하나만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루도 그 눈 하나 가지고 수십 개를 봤지 않습니까? 자꾸 바뀌 가면서 보았지 않습니까, 바뀌 가면서 들쭉, 바뀌 가면서 생각하죠. 바뀌 가면서 움직여지죠, 바뀌 가면서 먹죠, 말하죠. 그것이 어떻게 고정되게 하십니까?

그러니 모두 놔라 이거예요. 모두 맡겨 놔라 이겁니다. 놓으라니까 무슨 놓을 게 있어서 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밟고 거기에서밖에는 해를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감사를 함을 주지 못하고, 거기에 서밖에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고 거기에서밖에는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모두 품안으로 안을 수 있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 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은 '거기밖에 없다' 하고 밟고 나가라 이거죠. 그것이 놓는 거라고요.

그것이 놓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자꾸자꾸 놓아 들어가면 입보로 문쳐진 증생들이 다 그냥 보살로 화해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거기에서 호법신도 생기고 수호신도 생기고, 화신도 생기고 법신도 생기고 모두가 수효가 없이 생기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냐고요. 가정이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생기고 발이 넓어지고 속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 팻뱃해지고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죠.

그냥 묵묵히 일체를 나와 같이 보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바로 실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 공부 하지만 사실 공부하는 이들도 볼 일이 많고,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불, 그런 불쌍한 게 아니라 애처롭습니다. 여러분은 산 사람, 산 물질만 봐도 애처로운 일이 많은데, 죽은 영령들이 부모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마음, 애처롭게 끌고 다니는 그 마음, 세상에 그렇게 애처롭게 수가 없습니다. 인연이 뭐고 사랑이 뭐길래, 자식이 뭐고 부모가 뭐길래, 남편이

자기 주인공밖에 없다고 진짜로 믿고 나가라!

29면에서 계속

뭐고 아내가 뭐길래 그렇게들 인연줄이 짙고 짙어서 그걸 놓지 못해 붙들고 애처롭게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사람이 누구냐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도 살고 있고 저 별성에도 살고 있다. 여기 모습대로 거기도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그건 화신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육신이지만, 그 모습들은 화신으로서 모두 보현보살로 화해서 영계들이나 산 사람들이나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해서 직속 왕래를 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그런 일이 어디 있을까 이르죠.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빛보다 더 빨리 왕래를 하는데. 그러니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만날 빛고 '아이구, 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이리저 말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뭐 또 죽을까 봐 그렇게 살려 달라고 애를 씀니까?

그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팔랑개비대단 쥐고 다녔다고요. 그게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대만 쥐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우선에 내가 대를 쥐면 나한테도 바람이 있죠. 지수화풍이 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저절로 돌아갈 거라고요. 나는 그 대만 붙들고 다녔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을 안 했으니까 고통이 없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진짜로 자기의 자성불을 믿고서 약과 선을 다 놓을 수 있다면 집안에서 병 문제가 생겼어도 스스로 해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고통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 몸을 아프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가난하게 하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빠져리게 건건이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인연에 의해서 그게 업보가 되고 그래서 지금 건건이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누구의 탓도 할 것 없고 누구 원망도 할 것 없이 내 탓으로 들렸을 때, 바로 나로부터 그 일을 벌여 놓는 거니까 나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죠.

업을 소멸하며 살아가려면

문 우리가 한생각을 낼 때 주인공 불성 지리에서 내는 거하고 그냥 무명에서 낼 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명에서 한생각을 내면 그게 인제 고통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것을 12연기의 가르침에서 한결 연기가 되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것이 도리어 업을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업을 사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요.

답 무명에서 그러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내 몸이 있다고 인식하고 들어가면 그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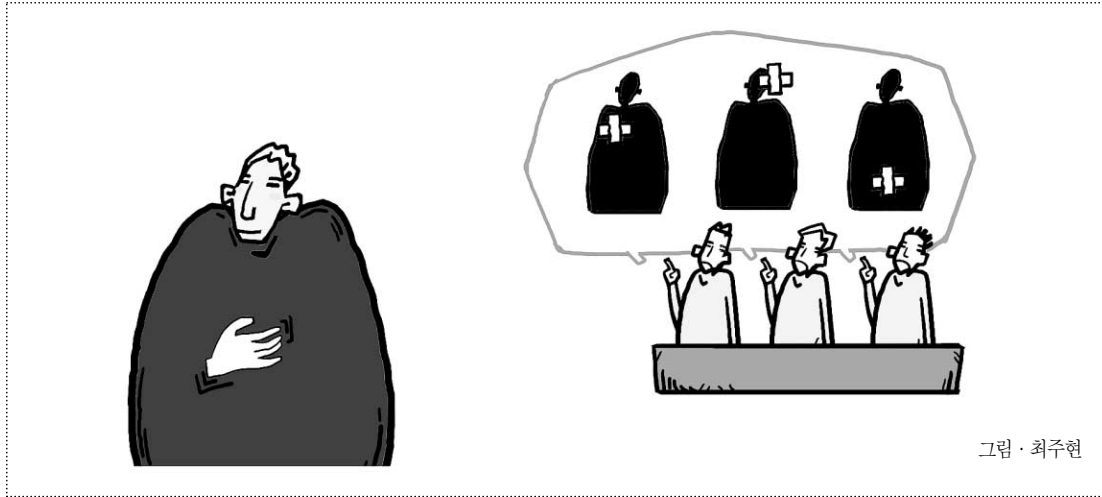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입니다

하는 것도 전부 그렇게 어서서거든요. 전부 그렇게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외려 고를 태산같이 불려오는 거고 쫓아지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 대로 고정됨이 없이 화해서 돌아간다 이거를 알면 한생각을 내도 오히려 천만 가지가 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전부 거기서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생각을 잘하면 육신이 여섯 개의 부처가 되고, 전체가 다 부처가 되고, 잘못 생각해서 바깥으로 끄달리면 여섯 개의 도둑이 된다는 얘기로요. 마구니가 되는 거죠. 세세생생에 빠져 나올 길이 없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생각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한생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거예요. 법이 되면 우리가 가만히 한 발짝 떼 놓지 않고도 그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떼 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본래 한 발짝 떼어 놓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발짝도 떼어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벌나게 사는 그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참나참나 화해서 나두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어디를 갈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고요.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발자국 떼어 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

국을 떼어 냈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안 했습니까? 떼어 놓는 대로 없어지는 것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도 바로 과거와 교차로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고 마음먹기에 달렸고, 마음을 먹어도 한마음을 먹기에 달렸다고 이겁니다.

내 몸속에도 생명들이 많으니까 한 개체를 더 붙여 한마음, 이 모두가 우리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일이고 진리를 파악해야 할 일이고 진리 속에서, 약과 선, 그 가운데서 내가 약에는 어떡하고 선에는 어떡해야 하는 그 도리를,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응법으로 모든 것을, 즉 말하자면 '공법'이라고 해도 되고 '용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실천을 항상 해 보십시오. 자기가 실천해야 할 체계를 있다 하더라도 대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 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 보면 내가 차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불교계의 시련에 대해서

문 요즘 들어서 불교계와 관련하여 이런 저런 일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불법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그러한 일들이 불교계 전

체를 호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불교계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 이것을 사람들이 넓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다 불상사라고 하지만 온기가 될 찬 데까지 서로 대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고 대처를 해 주지 않고 소용돌이치지 않는다면 밑에 있는 게 못 삼니다. 그래서 밑의 것이 위로 올라오고 위의 것이 밑으로 내려가야만 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서로 주고 서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물도 모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생명들이 없으면 물도 죽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도 역시 그렇습니다. 인간들뿐만이 아닙니다. 물에서 사는

것이든지 들에서 사는 것이든지 다 그렇죠. 들에서 풀을 태우는 일들도 다시 새싹이 나와서 다시 먹게 하기 위한 도리도 됩니다. 그게 자연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잘못해서 불이 났다 이렇기보다는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태풍이 일어서 사람이 많이 죽는데 그거는 어떤 일로 그러나 이러겠죠. 넓게 본다면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아들을 데려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슬모가 있기 때문에, 외아들이고 아니고 간에 다시 대처해서 내보낼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자유스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기주머니 한 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모든 게 자유스럽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은 그런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크게 돼라는 얘기로요. 그럼으로써 대처를 다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보십시오. 바다의 물이 파도를 이루지 않고 곧게 잔잔한 대로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물속 깊숙하게 있는 그 고기들이 살 수 있으며, 위에서 다니는 고기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뒤집어 보아 밑에 있는 양식을 위에서 먹고, 위에 있는 양식을 밑으로 내려보내고, 태양열도 밑으로 내려보내고 온기와 찬 기를 서로 섞어서 다 공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용도 할 수가 있죠.

모든 게 교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이런 바로 공생 공성으로서 공용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즉 말하자면 순환이라고 그럴까요? 정맥 · 동맥이 서로 돌아가서 순환이 돼서 이 몸품이 아주 건강하게 잘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입 꼭 다물고 눈 지그시 감고 심그레 웃으며 돌아서서 부지런히 정진하면 되는 일입니다. 말로 만들어진 일들은 자취없이 사그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던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관상학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안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청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근처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부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무문관 선원 후원회원 모집공고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본 계몽산 대자암 무문관 선원을 1992년 4월에 개원한 후 2002년 7월까지 10년간을 1년에 2회씩 각각 5개월과 1개월씩 연가기간을 정하여 두 문 불출 안거 정진을 마치고 새로 중생한 부여 제 2무문관에 함께 다시 1차 3년 결사안거를 2002년 8월에 시작하여 금년 2005년 오는 8월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2005년 8월부터 제 2차 3년 결사 안거를 하고자 하나 경제상 어려움이 많아 여러 신도님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후원 회원을 모집코자 하오니 많은 동참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기 간 : 2005년 10월 - 2008년 9월까지 (3년2년)
◆ 외 비 : 1개월에 1만원
◆ 승급 제책번호 :
• 우체국 310623-02-033475 • 예금주 : 문판오(장영)
◆ 부여 제 2무문관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은산 초등학교 매화분교)
• 전화 041)833-4963

계룡산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감사 대자암
전화 041)857-5880 / 857-3604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와 무안한 감사로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아하게 되었습니다.

두께 6.5KG 이상 55,000 원
인박스 13KG 이상 100,000 원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명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업은 신비의 달마도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역자담마, 병풍담마)

각자의 근교라 108기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